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4. 9. 30 | 통권 제53호(2014-05) |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

[요약]

- 2013년 20대 청년층(20~29세) 고용률은 56.8%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가파르게 둔화하는 추세로 나타남.
- 성별·학력별로 지난 10년을 살펴 보면 남성은 각각의 학력 집단(4년제 대졸 이상, 전문대졸 이하)에서 고용률 감소가 컸고, 여성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들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 집단은 크게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학업, 취업준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 인구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 안에서 소위 관참은 일자리로의 유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줌.
- 여성의 고용이 증가되었으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규모를 살펴 보았을 때, 여성들의 고용의 질까지 향상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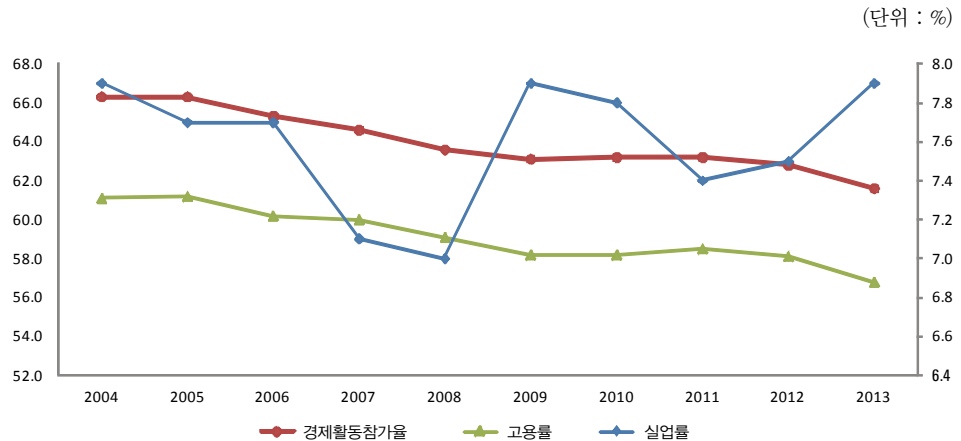
* 이 글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정재우(2014), 『노동리뷰』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20대 청년층 고용 현황

- 최근 청년층(20~29세) 고용률은 느린 속도의 경제회복과 함께 국제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 2013년 현재의 20대 청년 고용률은 56.8%로 이는 21세기에 접어든 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실업률은 7.9%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7.9%와 같았음.
 - 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하락하였고 특히 남성 청년층의 하락폭이 여성보다 큼.
 - 따라서 청년 노동시장은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어려운 과제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우리나라 20대 청년고용을 성별·학력별로 세분화하여 업종별→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함.
- 성별과 연령대를 2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면, 각 성별과 연령에 따라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실업자의 비중이 상이함.
 - 남성은 전체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상용직은 23세 이하에서 감소하고 26세 이상에서 증가하는 모습임.
 - 게다가 재학·학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용직 일자리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상됨.

[그림 1] 20~29세 청년층의 연도별 노동지표



주: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좌측 축 수치, 실업률은 우측 축 수치로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20대 청년층의 성별 및 연령별 고용률

(단위 : %)

성별	연령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성	20~29세	63.2	62.4	61.2	60.5	59.2	58.4	58.2	58.3	57.3	55.7
	20~24세	46.0	43.8	42.7	41.7	38.9	39.1	38.3	37.2	39.1	38.2
	25~29세	75.5	74.7	72.6	71.3	70.7	69.4	70.0	71.6	70.4	69.6
여성	20~29세	59.2	60.2	59.4	59.6	59.1	58.0	58.3	58.7	58.8	57.8
	20~24세	57.3	57.2	53.9	52.5	50.3	48.6	48.8	48.2	48.9	47.5
	25~29세	61.2	63.0	64.3	65.4	66.3	65.6	66.2	67.8	68.0	6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구체적인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로 연령대를 2세 단위로 세분화하였음. 1세 단위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분석에 필요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함임.

〈표 2〉 20대 남성의 세부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성별	연령별	연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전체	재학·학업	취업준비	기타	
남성	20~21세	2004	37.8	9.7	14.0	9.9	4.2	57.5	32.7	2.0	22.8	4.7
		2007	33.5	5.5	14.0	10.4	3.7	62.3	43.4	1.4	17.5	4.2
		2010	33.6	6.2	15.1	8.8	3.6	62.3	41.2	4.1	17.1	4.0
		2013	30.3	6.4	14.7	7.0	2.1	65.9	44.3	3.0	18.7	3.8
	22~23세	2004	46.6	13.7	21.2	8.0	3.6	46.7	32.4	3.5	10.8	6.8
		2007	40.8	10.1	19.7	8.5	2.4	53.5	40.7	4.4	8.4	5.7
		2010	36.4	9.7	17.0	6.8	3.0	59.2	45.1	4.5	9.6	4.4
		2013	38.9	11.8	17.4	6.8	2.8	57.5	45.0	4.0	8.4	3.6
	24~25세	2004	55.4	24.7	21.3	4.6	4.9	37.4	25.9	5.8	5.7	7.1
		2007	52.8	21.5	22.2	5.3	3.8	40.7	27.5	7.8	5.4	6.5
		2010	50.3	23.3	18.4	4.1	4.5	44.3	29.2	9.3	5.8	5.5
		2013	49.9	24.6	16.9	4.5	3.8	43.7	29.9	7.7	6.0	6.5
	26~27세	2004	74.8	41.4	22.5	3.8	7.2	17.8	7.1	5.5	5.2	7.4
		2007	69.8	42.5	18.9	2.9	5.6	23.5	9.5	9.5	4.4	6.7
		2010	65.3	40.4	17.7	2.7	4.6	27.4	11.3	10.3	5.7	7.3
		2013	65.9	42.2	16.7	1.4	5.5	26.9	10.5	10.2	6.3	7.2
	28~29세	2004	83.4	46.4	22.9	3.6	10.5	11.0	2.1	4.1	4.8	5.6
		2007	81.1	52.0	18.4	3.7	7.0	13.3	2.5	6.5	4.3	5.7
		2010	80.7	52.1	18.3	2.3	7.9	13.1	3.2	5.6	4.4	6.2
		2013	80.1	54.8	15.9	2.0	7.2	14.2	2.8	6.0	5.4	5.7

주 : 각 연도의 합은 100%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20대 여성의 세부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성별	연령별	연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전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전체	재학·학업	취업준비	기타	
여성	20~21세	2004	44.9	13.7	19.8	7.8	3.5	49.7	38.1	3.6	8.1	5.4
		2007	38.6	12.5	14.1	8.6	3.4	58.6	48.6	3.8	6.2	2.8
		2010	38.1	10.5	16.3	7.9	3.5	58.7	46.8	5.0	6.9	3.1
		2013	36.4	11.7	15.6	7.2	1.9	60.2	50.3	4.2	5.7	3.4
	22~23세	2004	61.7	27.9	26.1	4.2	3.5	32.1	16.1	5.3	10.8	6.1
		2007	56.0	28.0	21.3	4.0	2.7	39.6	22.5	7.9	9.2	4.5
		2010	52.3	25.5	20.3	3.1	3.4	42.3	22.1	10.1	10.1	5.5
		2013	52.3	28.2	18.6	2.9	2.6	42.0	23.3	8.9	9.8	5.7
	24~25세	2004	70.3	37.2	26.3	2.6	4.3	25.7	4.5	4.9	16.3	3.9
		2007	68.2	41.9	20.8	1.8	3.7	27.6	6.9	7.2	13.5	4.1
		2010	66.9	41.4	20.7	1.5	3.3	27.5	7.9	8.3	11.4	5.6
		2013	64.0	42.0	17.5	1.0	3.5	30.8	8.4	10.3	12.0	5.2
	26~27세	2004	65.5	37.5	21.3	1.8	4.9	31.6	1.2	2.6	27.8	2.9
		2007	68.7	42.0	20.2	1.4	5.2	28.1	2.7	4.9	20.5	3.1
		2010	68.4	45.9	18.6	0.9	3.0	27.5	2.1	6.1	19.2	4.1
		2013	68.6	50.0	13.9	1.3	3.5	26.8	3.4	5.7	17.7	4.5
	28~29세	2004	53.2	27.3	16.8	2.2	6.8	44.7	1.2	1.4	42.2	2.0
		2007	59.5	35.2	16.4	2.1	5.8	38.6	1.1	3.1	34.4	1.9
		2010	62.2	42.5	14.3	1.5	3.9	35.1	1.5	3.4	30.2	2.7
		2013	68.0	48.9	12.8	1.1	5.1	29.5	0.8	3.2	25.5	2.5

주 : 각 연도의 합은 100%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여성은 전체 취업자 비중이 25세 이하에서 감소, 26세 이상에서 증가하고 이 중 상용직은 22~29세에서 증가하는 모습임.
-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학업 중이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비중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분 증가하고 기타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함.

가하고 있으나 참가율과 취업률은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로 인한 인구효과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취업자 증가율은 매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효과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요인분해로 본 청년층 취업자 감소 원인

- 20대 청년층 전체와 학력별로 구분하여 요인분해 분석을 한 결과,²⁾ 20대 청년층 전체 참가율은 2010~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취업자 감소는 공급부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취업률도 감소하여 수요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요인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됨.
-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자의 경우, 취업자 증가율은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

20대 청년층의 고용변화

- 성별과 학력별³⁾로 지난 10년간의 고용률 변화⁴⁾를 살펴본 결과,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인 여성들의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나 타 집단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제조업에서 주로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비중이 증가함.

〈표 4〉 학력별 청년층 취업자 증가율 요인별 변화

(단위 : %)

	청년층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취업자 증가율	인구효과	참가율	취업률	취업자 증가율	인구효과	참가율	취업률	취업자 증가율	인구효과	참가율	취업률
2004	-0.30	-1.84	1.76	-0.22	-3.22	-2.93	0.12	-0.41	4.48	4.00	0.40	0.08
2005	-2.62	-2.78	-0.02	0.17	-4.39	-5.37	1.45	-0.47	0.62	1.52	-1.70	0.79
2006	-3.50	-1.94	-1.56	0.00	-6.01	-6.65	-0.03	0.67	3.79	5.71	-0.52	-1.39
2007	-1.70	-1.31	-1.04	0.65	-2.86	-3.38	0.06	0.46	0.86	0.11	-0.48	1.23
2008	-2.47	-1.03	-1.56	0.13	-6.25	-4.72	-1.74	0.21	3.94	3.76	0.29	-0.11
2009	-2.98	-1.33	-0.72	-0.93	-5.50	-3.89	-0.64	-0.96	-1.16	-0.67	0.74	-1.22
2010	-1.83	-1.96	0.03	0.11	-3.27	-4.87	1.11	0.49	1.08	1.33	-0.35	0.10
2011	-1.55	-2.01	0.09	0.37	-5.81	-5.20	-1.09	0.48	3.78	1.56	1.86	0.36
2012	-1.08	-0.35	-0.70	-0.03	-0.69	-2.15	1.27	0.20	-2.97	-1.22	-0.62	-1.13
2013	-1.19	1.07	-1.80	-0.45	-3.99	-3.41	-0.19	-0.39	3.01	3.48	-0.27	-0.20

주 : 전문대졸 이하와 4년제 대졸 이상은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P \times \frac{L}{P} \times \frac{E}{L} \Rightarrow \dot{E} = \dot{P} + \left(\frac{\dot{L}}{P}\right) + \left(\frac{\dot{E}}{L}\right)$
 (P:생산가능인구, L:경제활동인구, E:취업자, ∙:증가율)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취업률($\frac{E}{L}$), 경제활동참가율($\frac{L}{P}$), 그리고 인구비중(P)으로 볼 수 있음.

취업자 수 증가율(\dot{E})은 생산가능인구 변화율(\dot{P})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율($\frac{\dot{L}}{P}$), 그리고 취업률의 변화율($\frac{\dot{E}}{L}$)의 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3) 전문대졸 이하와 4년제 대졸 이상은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4) 예를 들어, 남성 제조업 취업자 비중의 2013년과 2004년 사이의 차이는 -6.1임. 이 값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남성 중 [(2013년 제조업 취업자 수÷2013년 생산가능인구수)×100]-[(2004년 제조업 취업자 수÷2004년 생산가능인구수)×100]의 식으로 구한 값임.

〈표 5〉 2004~2013년간 20대 학력별 고용 변화에 산업이 미친 영향

(단위 : %, %p)

학력	산업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2004	2009	2013	증감		2004	2009	2013	증감		
					09~13	04~13				09~13	04~13	
4년제 대졸 이상	농림어업	0.4	0.6	0.6	0.0	0.2	0.4	0.0	0.0	0.0	0.0	-0.3
	광업	-	-	-	-	-	0.0	-	-	-	-	-
	제조업	20.1	14.2	14.1	-0.1	-6.1	5.5	6.4	4.9	-1.5	-0.7	-0.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0.6	0.8	0.5	-0.3	-0.1	0.2	0.3	0.2	-0.1	0.1	0.1
	하수, 원료재생·복원	0.5	0.2	0.4	0.1	-0.1	0.1	0.1	0.1	0.0	0.0	0.0
	건설업	4.4	4.4	3.2	-1.2	-1.2	1.3	1.4	1.2	-0.2	-0.1	-0.1
	도매 및 소매업	10.7	7.5	10.0	2.5	-0.7	8.5	5.5	7.5	2.0	-1.0	-1.0
	운수업	1.7	2.4	1.4	-1.0	-0.3	1.2	1.4	1.4	0.0	0.3	0.3
	숙박 및 음식점업	1.2	1.4	2.6	1.2	1.3	1.9	2.1	3.5	1.4	1.6	1.6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8.7	7.4	7.5	0.1	-1.2	5.4	3.9	4.1	0.3	-1.3	-1.3
	금융 및 보험업	4.6	6.0	5.6	-0.5	1.0	4.3	5.6	6.0	0.4	1.6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0.4	0.7	0.3	-0.3	0.4	0.4	0.5	0.1	0.1	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8.1	10.2	9.6	-0.7	1.4	4.8	6.2	6.7	0.5	1.9	1.9
	사업서비스	0.9	1.9	2.9	1.0	2.0	1.2	2.6	3.3	0.7	2.2	2.2
	공공행정 등	2.6	4.1	2.0	-2.1	-0.6	2.9	4.0	2.4	-1.6	-0.5	-0.5
	교육서비스업	6.3	6.1	6.5	0.4	0.2	25.7	23.3	15.5	-7.9	-10.2	-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3.5	3.4	3.3	-0.2	-0.3	4.7	5.6	9.6	4.0	4.9	4.9
	예술·스포츠·여가 등	1.8	1.3	2.4	1.1	0.6	1.4	2.0	1.6	-0.4	0.2	0.2
	협회·단체·수리·기타	1.4	1.4	1.9	0.4	0.5	1.6	1.2	2.1	0.9	0.5	0.5
	가구내 및 자가	-	-	-	-	-	0.0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0.2	-	0.0	-	-0.1	-0.1	
전 체	78.6	73.7	75.0	1.2	-3.6	71.7	72.0	70.9	-1.2	-0.8	-0.8	
전문 대졸 이하	농림어업	0.8	0.7	1.4	0.7	0.7	0.4	0.3	0.6	0.3	0.2	0.2
	광업	0.1	0.1	0.0	-0.1	-0.1	0.0	-	0.0	-	0.0	0.0
	제조업	24.8	22.4	22.6	0.1	-2.2	10.5	7.7	8.5	0.8	-2.0	-2.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0.3	0.2	0.1	-0.1	-0.2	0.1	0.1	0.1	-0.1	0.0	0.0
	하수, 원료재생·복원	0.2	0.4	0.2	-0.2	0.1	0.0	0.1	0.1	0.0	0.1	0.1
	건설업	6.8	5.6	4.4	-1.2	-2.4	2.1	1.5	1.3	-0.2	-0.7	-0.7
	도매 및 소매업	16.1	14.9	15.6	0.7	-0.5	13.9	12.1	10.9	-1.2	-3.1	-3.1
	운수업	3.0	3.6	2.8	-0.8	-0.3	1.0	1.2	1.4	0.3	0.5	0.5
	숙박 및 음식점업	6.3	6.4	7.7	1.4	1.4	4.9	5.1	5.9	0.7	1.0	1.0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2.9	3.5	2.6	-0.8	-0.2	2.3	2.3	2.0	-0.3	-0.3	-0.3
	금융 및 보험업	1.7	1.4	0.8	-0.6	-1.0	3.8	2.8	1.7	-1.1	-2.1	-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0.8	0.9	0.6	-0.2	-0.1	0.7	0.8	0.5	-0.3	-0.3	-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5	2.3	2.4	0.0	-0.2	2.5	3.6	4.2	0.6	1.6	1.6
	사업서비스	3.1	3.8	4.5	0.6	1.3	1.6	2.6	2.7	0.1	1.2	1.2
	공공행정 등	0.7	1.2	0.8	-0.4	0.1	1.0	1.2	0.4	-0.8	-0.6	-0.6
	교육서비스업	1.2	1.3	0.6	-0.6	-0.6	6.0	5.6	4.2	-1.4	-1.8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0.9	1.4	1.6	0.1	0.6	7.7	11.9	17.0	5.1	9.2	9.2
	예술·스포츠·여가 등	1.8	2.0	1.8	-0.2	0.0	1.1	0.9	1.0	0.0	-0.1	-0.1
	협회·단체·수리·기타	4.4	3.7	4.0	0.3	-0.3	3.5	3.8	4.2	0.4	0.7	0.7
	가구내 및 자가	0.0	0.0	-	-	-	0.0	0.0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1	-	-	-	-	-	-	-	-	-	-	
전 체	78.5	75.8	74.6	-1.2	-3.8	63.2	63.7	66.7	3.0	3.5	3.5	

주 :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남성의 고용률은 전체 3.6% 감소하였고, 특히 제조업(-6.1%)의 취업자 비중의 감소가 컸음.

- 전문대졸 이하 학력을 지닌 남성은 전체 고용률이 3.8% 감소하였고, 주로 건설업(-2.4%), 제조업(-2.2%) 등에서 감소함.

- 여성의 경우 4년제 대졸 이상 여성은 전체 고용률이 0.8% 감소하였으나 전문대졸 이하의 여성은 3.5% 증가함.
- 여성 집단들의 공통점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대졸 이상 4.9%, 전문대졸 이하 9.2%) 취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사업체 규모와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변화를 살펴본 결과, 규모가 30인 이상인 사업체의 취업자 비중이 주로 감소하였고,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대체로 증가하나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4년제 대졸 이상 남성은 비기간제⁵⁾ 상용직을 제외한 모든 임금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하고, 타 집단들에서는 비기간제·기간제 상용직에서 증가하였고,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자에서 감소함.
- 남성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는 5~29인 사업체 규모에서 고용률 증가하였고, 타 규모에서는 감소함.
- 전문대졸 남성은 5~9인 규모의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나 상용직(비

〈표 6〉 2004~2013년간 20대 학력별 남성의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별 고용 변화

(단위 : %)

성별	학력	사업체규모	상용		임시직	일용직	자영/고용주	무급가족	전 체
			4년제 대졸 이상	기간제					
남성	4년제 대졸 이상	1~4인	1.6	0.1	-1.7	-0.1	-1.8	0.7	-1.1
		5~9인	1.1	0.3	-1.0	-0.1	0.1	0.0	0.2
		10~29인	4.7	-0.2	1.1	0.1	-	-	5.8
		30~99인	-1.9	-0.4	-1.4	-0.1	-	-	-3.8
		100~299인	-0.3	-1.1	-0.5	0.0	-	-	-1.9
		300인 이상	-1.2	-0.9	-0.3	-	-	-	-2.4
		전 체	4.0	-2.3	-3.8	-0.2	-1.7	0.7	-3.3
	전문 대졸 이하	1~4인	1.3	0.1	-2.1	-0.9	-1.6	0.4	-2.8
		5~9인	2.4	0.2	-1.1	-0.8	-0.1	-0.3	0.4
		10~29인	1.6	0.3	-1.6	-0.5	-	0.0	-0.2
		30~99인	0.0	-0.3	-0.5	-0.1	-	-	-1.0
		100~299인	0.3	-0.1	-0.3	0.0	-	-	-0.2
		300인 이상	0.3	0.1	-0.5	0.0	-	-	-0.1
		전 체	5.9	0.4	-6.1	-2.3	-1.7	0.0	-3.8
여성	4년제 대졸 이상	1~4인	2.2	0.2	-0.3	-0.1	-0.6	-0.2	1.2
		5~9인	3.6	-0.3	-3.1	-0.3	0.1	0.0	0.2
		10~29인	1.8	0.5	-3.8	0.2	-	-	-1.3
		30~99인	-1.4	0.9	-1.1	0.0	-	-	-1.6
		100~299인	0.3	0.2	-0.7	0.0	-	-	-0.1
		300인 이상	1.0	0.0	0.1	-0.1	-	-	1.0
		전 체	7.6	1.5	-8.8	-0.4	-0.4	-0.2	-0.7
	전문 대졸 이하	1~4인	3.5	0.2	-1.0	-1.1	-0.3	-0.7	0.5
		5~9인	3.5	0.7	-1.8	-0.2	0.0	0.0	2.2
		10~29인	4.0	0.4	-1.7	-0.2	-	0.0	2.5
		30~99인	0.5	-0.1	-0.9	-0.2	-	-	-0.7
		100~299인	-0.4	0.3	-0.2	-0.2	-	-	-0.5
		300인 이상	-0.1	0.2	-0.5	-0.1	-	-	-0.4
		전 체	11.0	1.5	-6.0	-2.0	-0.3	-0.7	3.5

주 :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 기간제 상용직은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 비기간제 상용직과는 구분이 필요함. 상용직 안에는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도 존재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세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 기간제, 기간제)에서 대부분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감소함.
- 대졸 여성은 9인 이하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용률이 감소하였으나 상용직(비기간제, 기간제)에서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크게 감소함.
-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여성은 29인 이하 규모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특히 상용직 중 비기간제 상용직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청년 여성은 고용률이 상승하고, 상용직 고용률 증가폭이 남성에 비해 높았음.
- 상용직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집단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이었고, 이는 대졸 여성 상용직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저임금 상용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전문대졸 이하의 여성은 상용직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높음.

특성별 임금

- 청년 남성에게 비해 여성 고용량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기에, 임금을 통해 고용의 질을 예상해 본 결과, 청년 여성은 저임금 일자리⁷⁾에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음.

- 회귀분석을 통해 남녀의 임금격차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용직 여성의 평균임금은 개인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남성 상용직과 비교해 2004년에는 $-6.8\%(-0.068 \times 100)$, 2013년에는 $-11.7\%[(-0.068 + (-0.049)) \times 100]$ 수준으로 낮았음.⁸⁾

〈표 7〉 20대 청년층 종사상 지위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					
		상용			임시직	일용직	전체
		전체	비기간제	기간제			
4년제 대졸 이상 남성	2004	2.1	0.5	1.6	16.7	55.1	4.0
	2009	0.5	0.5	-	20.1	64.4	4.8
	2013	2.4	2.4	-	23.9	38.9	6.1
전문대졸 이하 남성	2004	22.6	6.5	16.1	31.8	38.9	19.7
	2009	17.0	4.9	12.1	33.4	53.8	18.4
	2013	13.7	5.3	8.4	43.8	76.3	20.7
4년제 대졸 이상 여성	2004	8.8	3.7	5.1	19.1	39.0	9.3
	2009	7.6	2.7	4.9	17.8	68.0	8.6
	2013	12.0	3.1	8.8	29.7	82.0	9.9
전문대졸 이하 여성	2004	23.1	14.9	8.1	46.2	65.3	29.4
	2009	20.7	10.3	10.4	44.9	82.2	24.2
	2013	17.9	10.7	7.3	54.2	95.3	24.6

주 :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종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6) 〈표 5〉와 〈표 6〉의 2004~2013년 사이의 전체 고용률 증감의 차이가 나타남. 이는 2004년 또는 2013년에 잡히지 않은 값에서 비교연도의 값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임. 예를 들어, 2013년의 어떤 값을 0으로 보고 2004년의 값을 뺀 것이 아니라 missing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 고용률의 차이가 존재함.

7) 고임금은 15세 이상 인구 중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를 초과하는 임금, 저임금은 같은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임금, 중간임금은 고임금과 저임금 사이를 의미함. 이를 계산할 때,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 또는 히핑 오차(heapung error)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원수의 증감 계산은 오류를 야기할 수 있음. 그러므로 숫자의 증감보다는 비중의 변동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임.

8) 교호항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조합하여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들 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함. 〈표 8〉의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OLS에서 성별*연도(여성*2013년)의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고,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OLS 결과 값은 성별*연도의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상호작용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음.

〈표 8〉 상용근로자와 전체 임금근로자의 남녀 임금 OLS 결과

모형	Log 시간당 임금	
	상용직 (1)	전체 임금근로자 (2)
여성 임금격차	-0.068*** (0.014)	-0.069*** (0.014)
연도(2013년)	0.404*** (0.015)	0.402*** (0.015)
성별*연도 (여성*2013)	-0.049* (0.020)	-0.024 (0.020)
나이	0.021 (0.040)	0.020 (0.039)
나이 제곱	0.0003 (0.001)	0.0004 (0.001)
교육수준	Yes	Yes
상수항	-1.823*** (0.513)	-1.918*** (0.498)
Adjusted R-sq	0.415	0.360
Observation	5,116	8,014

주 : 4년제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이하는 졸업·중퇴자로 한정하여 분석.

* p<0.05 ** p<0.01 *** p<0.0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는 성별×연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2013년 여성의 임금수준은 2004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남성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계수추정치를 통해 알 수 있음.

참고문헌

성재민(2011),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노동리뷰』 11월호, pp.76~96.
 정성미(2009), 「20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노동리뷰』 4월호, pp.32~41.
 정한나·이태(2011), 「한국에는 Glass Ceiling 효과가 존재하는가?」, 『산업관계연구』 21(1), pp.153~183.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02-3775-5582 / jungx315@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